



중국에서의 에이즈 홍보

고이즈미, 에이즈기금에 2억불 지원

미국을 방문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는 30일 '세계 에이즈 보건기금'에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2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에이즈 특별 총회에서 '세계 에이즈 보건 기금'의 창설에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로이터인터넷, 7/1)

오랄 섹스 통한 에이즈 감염 위험 생각보다 높아

오랄 섹스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5일 영국공중보건연구소(PHLS)가 밝혔다.

오랄 섹스는 알려진 대로 성기를 다른 사람의 항문이나 질에 직접 삽입하는 섹스에 비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될 확률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국제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에 걸린 남성 동성애자의 8%가 바로 이 오랄 섹스 때문이라는 것.

PHLS의 HIV 및 성병감염부서장 배리 에반스 박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오랄 섹스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랄 섹스로 인한 HIV 감염자가 영국에서 매년 30~50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정도 숫자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보다 높은 것이다. (로이터인터넷, 7/6)

에이즈 바이러스 남아있어도 치료 실패로 볼 수 없어 - 미국 연구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 혈류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됐다고 해서 약물 치료가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미국 연구진이 밝혔다.

UC 샌디에고의 다이안 해블러 박사팀은 미국의학협회 저널 최신호에 보고한 연구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는 한동안 더 많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해서 치료가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환자 254명을 대상으로 4년 6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혈류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수준이 간헐적으로 높아진 환자들이라도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약물 치료 실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C 샌프란시스코의 스티븐 덕스 박사는 이번 연구 보고와 함께 실린 사설을 통해 "현재의 약물 치료법은 최적의 상태에서 적용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7/11)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의 어린이 에이즈환자



콘돔을 팔고 있는 짐바브웨 한 호텔바

케냐대통령 "성생활 당분간 하지 말자"

에이즈로 하루 700여명이 숨지고 있는 케냐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당분간 성생활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대니얼 아랍 모이 대통령은 최근 케냐 약사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콘돔에 대한 케냐인의 거부감이 매우 크지만 앞으로 4년간 3억개의 콘돔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케냐 인구 3000만명 중 200만명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로 추정되고 있다.

케냐 정부는 1999년 에이즈 확산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문에 '에이즈'라는 말이 등장하지조차 않을 정도로 케냐 사회는 에이즈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동아일보, 7/16)

10억달러 에이즈기금 조성

선진국들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은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개막한 G-8 정상회담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에이즈 퇴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에이즈와 다른 질병들을 물리치도록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7/21)

미국 10대 소녀 에이즈 감염 급증

이성간 섹스를 통한 10대 소녀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률이 지난 94년과 98년 사이 거의 117%나 급

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 국립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리사 M 리 박사와 패트리샤 L 플레밍박사는 미국 내 25개주의 관련자료를 기초로 공동연구, 미국 여의사협회 학회지 여름호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15~19세 소녀의 성행위를 통한 에이즈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각종 주사약물 투여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도 90% 증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약물투여나 성행위 같이 HIV 감염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시작할 연령에 도달하면서 에이즈 진단 수와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10대 소녀들에 대한 집중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적절한 HIV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인터넷, 7/24)

모잠비크 아동 에이즈 감염 취약 - UNICEF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3일(현지시간) 모잠비크의 아동 노동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처를 강조했다.

모잠비크의 UNICEF 아동보호 사무국장인 빅토리아 페셀러-테사이는 로이터에게 이같이 밝히고, 모잠비크에서는 15세 이하 아동들이 매춘부나, 농장 노동자, 잡상인 등으로 일하고 있는데, 특히 매춘에 종사하는 여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셀러-테사이 국장은 UNICEF는 25일 모잠비크 노동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이들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로이터인터넷, 7/24)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과 아기들을 돌보는 테레시 수녀의 집 의 3살짜리 에이즈 고아

클린턴/베이비페이스, 에이즈 기금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팝 가수 겸 프로듀서인 케네스 "베이비페이스" 에드본즈가 아프리카 지역 에이즈 실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기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30일 뉴욕 할렘에 마련한 새 사무실로 옮겨 온 클린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에이즈재단의 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 역시 "개인 시민" 자격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미상을 10회나 수상한 에드본즈는 국제 에이즈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을 방문, 실태 확인 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욕에서 각각 자선 공연을 가질 예정이며 수익금 마련을 위한 음반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인터넷, 8/1)

중국, 수혈 통한 에이즈 확산 방지 노력 착수

중국 내 에이즈 확산 속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수혈을 통한 HIV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에 착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정부가 이를 위해 매년 1억위안(1천200만

달러)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정부의 이 같은 프로그램 마련은 중부 허난성(河南省)의 혈액은행에서 공급된 혈액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위생부(衛生部) 소속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감염자수가 6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유엔 역시 결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중국 내 에이즈 감염자수가 오는 2010년까지 1천만명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인터넷, 8/3)

에이즈 걸린 여성도 정상아 출산 가능

몇 년 전만 해도 에이즈에 걸린 여성들은 임신은 꿈도 꿀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약물 치료의 발달로 태아 감염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에이즈 감염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브록클린의 베이모나이즈 의학 센터의 하워드 미노프 박사는 "기존에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염될 확률이 25%였으나 지난 10년간 이 비율은 2~3% 내로 떨어졌으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제대로 받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99%가 감염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기간에 사용한 약물이 장기적으로 태아와 산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또 에이즈 감염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더라도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감염 위험에 대해 늘 우려를 해야만 한다. (여성신문, 8/13)

에이즈 백신 내년 초 인체실험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인체실험이 내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남아공의 선데이 인디펜던트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남아공 의사들이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음성 판정을 받은 자원자 가운데 48명을 더반의 RK 칸 병원에서 실시되는 1단계 임상실험에 투입키로 하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번이고 있다고 전했다.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MRC) 마크 콜빈 박사는 이번 연구는 2003년 초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박사는 "이번 임상실험은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1단계 실험으로 에이즈 백신과 위약(偽藥·placebo)이 동시에 접종된다"면서 "실험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누가 위약을 접종 받았는지는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에이즈 백신은 MRC와 미국의 알파백스사(社)가 개발한 것으로 남아공에 널리 퍼져 있는 C형 에이즈 바이러스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 8/13)

아시아, 번창하는 섹스산업 지역 - WHO

아시아 지역에서는 콘돔 사용으로 에이즈가 크게 확산 되는 것을 막았지만 섹스산업이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13일 밝혔다.

WHO는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회의 개막 일에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콘돔 사용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전했다.

WHO의 서태평양 지역 담당인 오미 시게루 소장은 "태국이나 캄보디아의 예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에이즈 확산을 막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8/13)

미국 내 에이즈 재확산 조짐 있다 - CDC

미국 연방 보건전문가들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노력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일부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에이즈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발표한 2000년 상반기 자료를 통해 현재 미국 내 에이즈 환자가 1만6천 여명에 이르며 매년 HIV에 새로 감염되는 사람만도 4만 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 가운데 HIV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의 20%가 HIV 음성 반응자인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이애

미저 사우스 비치의 경우 23~29세 사이의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 가운데 16%가 HIV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인터넷, 8/14)

미국인들, 에이즈 검사 조기에 하지 않아 - 美CDC

미국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HIV감염 여부를 가리는 테스트를 조기에 받지 않는 바람에 에이즈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미국 보건 전문가들이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25개주에서 에이즈로 진단 받은 사람들 중 41%만이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는 에이즈 고위험 그룹의 사람들의 경우 HIV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수치심과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HIV검사를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8/16)

日, HIV 제거정자로 체외수정 성공

일본 니가타(新潟)대 의학부는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남편의 정자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한 뒤 아내의 난자와 체외수정하는데 성공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의료팀은 최근 남편 쪽이 에이즈 환자인 2쌍의 부부에 대해 이 같은 체외수정을 마쳤으며 임신부와 태아는 각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체외수정에 성공한 부부는 30대 동갑 한 쌍과, 남편이 30대이고 아내가 40대인 한 쌍이었다. 이 중 한쪽 커플의 남편은 혈우병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혈액제 주사에 의해 HIV에 감염됐다.

의료팀은 "감염을 각오하고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들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40명 이상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8/16)